

2016. 5. 13.(금)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경기일보

2016년 05월 13일 (금)
02면 종합

최북단 트래킹 코스 평화누리길 21일 조재현 다리 개통

대한민국 최북단 트래킹 코스인 평화누리길에 '조재현 다리'가 놓인다.

경기도는 오는 21일 연천군 미산면 일대 평화누리길 제11코스 임진적벽길에서 '수현재교(일명 조재현 다리)'의 개통식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이 다리는 평화누리길 제11코스 임진적벽길 19km 중 황공천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건너는 높이 14m, 길이 46m, 폭 3m 규모의 교량이다.

그동안 임진적벽길은 코스 구조상 황공천을 건너는 다리가 없어 제방을 따라 0.8km를 우회함에 따라 탐방객들로부터 트래킹에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도는 탐방객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해 10월 착공, 2개월간의 공정기간을 거쳐 12월 21일 준공했다.

특히 이 다리의 명칭 '수현재교'는 명예 연천군민이면서 초대 평화누리길 홍보대사이자 DMZ 국제 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영화배우 조재현 씨의 '현'과, 조 씨의 형이자 카메라 감독이었던 고(故) 조수현 씨의 '수'를 따 지었다.

다리에는 현판과 함께 평화누리길의 표장을 새긴 펜던트도 설치되며 탐방객들은 이동 편의는 물론 교량 위에서 임진강 일대 빼어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김창학기자
5.6 X 18.7 cm

조재현, 이름·이미지 사용 무상수락

명예군민으로 郡 요청에 허락 태후 소속사 사용 반대와 대조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컨셉으로한 지역 관광상품에서 출연진 소속사의 반대로 포스터조차 사용하지 못하는(중부일보 5월 11·12일자

1면 보도) 반면, 배우 조재현(사진)씨가 연천군 평화누리길 다리에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21일 연천군 미산면 일원 평화누리길 제11코스 임진적벽길에 조재현 다리가 놓인다.

조재현 다리로 불리는 이 다리의 이름은 '수현재교'로 명예 연천군민이면서, 초대 평화누리길 홍보대사이자 DMZ 국제 다류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영화배우 조재현 씨의 '현'과, 조 씨의 형이자 카메라 감독이었던 고(故) 조수현 씨의 '수'를 따 지었다.

지난해 조재현씨는 다리에 이름을 붙이겠다는 요청에 '한류스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고사했다.

그러나 낙후된 연천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연천군의 요청으로 이 같은 명칭을 붙이게 됐다.

또 다리에 자신의 얼굴을 이미지화

한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도 수락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처음에는 배우 조재현씨가 자신은 톱스타가 아닌데 이름을 붙이면 관광지에 오히려 누가 될 수 있다며 고사했었다"면서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름을 거는 것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와 강원도 태백시, 정선군은 각각 태양의 후예를 컨셉으로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중이지만 출연

배우 소속사의 반대로 드라마 공식 포스터, 배우 이미지가 들어간 사진 등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3개 사업의 저작권 협의를 총괄하는 한국관광공사가 출연 배우의 소속사인 불려썸엔터테인먼트에 포스터 사용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미지 남용을 이유로 허가받지 못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배우 송혜교씨 소속사의 경우 남용하지 않는 선에서 포스터 사용은 가능하다고 구두

로 답변을 받았다"면서 "포스터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지역 관광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재현 다리는 제11코스 임진적벽길 총 19km 중 황궁천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건너는 높이 14m, 길이 46m, 폭 3m 규모의 교량이다.

그간 임진적벽길은 황궁천을 건너는 다리가 없어 제방을 따라 0.8km를 우회해야 했지만 다리가 놓이면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조윤성·백재구기자**

연천 평화누리길에 '조재현 다리' 생긴다

배우 조재현, 사진 등 사용 수락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컨셉으로 한 지역 관광상품에서 출연진 소속사의 반대로 포스터조차 사용하지 못하는(중부일보 11일자 1면 보도) 반면, 배우 조재현씨가 연천군 평화누리길 다리에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21일 연천군 미산면 일원 평화누리길 제11코스 임진적벽길에 조재현 다리가 놓인다.

조재현 다리로 불리는 이 다리의 이름은 '수현재교'로 명예 연천군민이면서, 초대 평화누리길 홍보대사이자 DMZ 국제 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영화배우 조재현 씨의 '현'과, 조 씨의 형이자 카메라 감독이었던 고(故) 조수현 씨의 '수'를 따 지었다.

지난해 조재현씨는 다리에 이름을 붙이겠다는 요청에 '한류스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고사했다.

그러나 낙후된 연천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연천군의 요청으로, 이 같은 명칭을 붙이게 됐다.

또 다리에 자신의 얼굴을 이미지화 한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도 수락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처음에는 배우 조재현씨가 자신은 톱스타가 아닌데 이름을 붙이면 관광지에 오히려 누가 될 수 있다며 고사했었다"면서 "그러나 지역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름을 거는 것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와 강원도 태백시, 정선군은 각각 태양의 후예를 컨셉으로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중이지만 출연 배우 소속사의 반대로 드라마 공식 포스터, 배우 이미지가 들어간 사진 등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3개 사업의 저작권 협의를 총괄하는 한국관광공사가 출연 배우의 소속사인 블러썸엔터테인먼트에 포스터 사용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미지 남용을 이유로 허가받지 못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배우 송혜교 씨 소속사의 경우 남용하지 않는 선에서 포스터 사용은 가능하다고 구두로 답변을 받았다"면서 "포스터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지역 관광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재현 다리는 제11코스 임진적벽길 총 19km 중 황공천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건너는 높이 14m, 길이 46m, 폭 3m 규모의 교량이다. 조윤성·박재규기자

평화누리길에 '조재현 다리' 놓인다

3억5천만원 들여 21일 개통

대한민국 최북단 트래킹코스인 평화누리길에 '조재현 다리'가 놓인다.

경기도는 오는 21일 연천군 미산면 일원 평화누리길 11코스 임진적벽길에서 '수현재교(일명 조재현 다리)' 개통식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이 다리는 평화누리길 11코스 임진적벽길(총 19km) 가운데 황공천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건너는 높이 14m, 길이 46m, 폭 3m 규모의 교량이다.

그동안 코스 구조상 황공천을 건너는 다리가 없어 제방을 따라 우회, 탐방객들로부터 트래킹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탐방객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3억5천만원을 투입, 지난해 10월 착공해 같은해 12월21일 준공했다.

다리 명칭인 '수현재교'는 명예 연천군민, 초대 평화누리길 홍보대사, DMZ 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영화배우 조재현 씨의 '현'과 조 씨의 형이자 카메라 감독이었던 고(故) 조수현 씨의 '수'를 따 지었다.

당초 조재현 씨는 본인 스스로 한류스타가 아니라며 사양했으나 낙후된 연천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연천군의 요청으로 이 같은 명칭이 붙게 됐다.

다리에는 현판과 함께 평화누리길의 표장을 새긴 펜던트도 설치, 탐방객들은 이동편의는 물론 교량위에서 임진강 일원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윤병집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수현재교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평화누리길을 대표하는 다리"라면서 "앞으로도 평화누리길 탐방객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이들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과 함께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통식은 연천 임진적벽길에서 진행되는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슬하기자 rachel@

11.8 X 12.3 cm

연천군 평화누리길 11코스 임진적벽길 배우 조재현 사연 담긴 '수현재교' 개통

道 "21일부터 통행 시작"

경기도는 오는 21일 연천군 미산면 일원 평화누리길 제11코스 임진적벽길에서 수현재교(일명 조재현 다리) 개통식을 갖고 통행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교량은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돼 평화누리길 제11코스 임진적벽길 총 1.9km 중 황공천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건너는 높이 14m, 길이 46m, 폭 3m 규모로 건설됐다.

임진적벽길은 그동안 코스 구조상 황공천을 건너는 다리가 없

어 제방을 따라 0.8km를 우회함으로써 탐방객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수현재교는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3월 실시계획에 들어가 10월 착공, 약 2개월간의 공정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이 다리의 명칭은 명예 연천군민이면서 초대 평화누리길 홍보대사이자 DMZ 국제 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영화배우 조재현 씨의 '현'과, 조 씨의 형이자 카메라 감독이었던 고(故) 조수현 씨의 '수'를 따 지었다. /의정부=강성준 기자

sikang15@incheonilbo.com